

國民文學派 評價問題

—1920年代 後半期の 韓國文學史에 관한 研究—

金 容 稷*

1

國民文學派란 명칭이 구체적으로 한 組織體를 이룬 集團을 指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近代文學史上的 한 사실이지만 1925年 이른바 新興文學의 集團인 카프가 發足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一方的인 이데올로기 攻勢가 시작되자 그에 對應, 자신의 文學的인 立場을 再確認하는 文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카프의 階級 一邊倒 指向에 맞서 그들이 잡은 行動의 旗幟가 民族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國民文學派란 그런 旗幟아래 自然發生的으로 모여 한 流派를 이룬 一群의 詩人, 作家들을 가리키는 것이다.¹⁾

한편 國民文學派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우선 그 構成人員을 살피는

* 서울大國文科副教授(國文學專攻)

- 1) 구체적으로 國民文學派의 形成은 1926年度부터로 把握되고 또 그 下限線은 30年代 初半期로 짐작된다. 國民文學派의 페에계格에 해당되는 카프가 發足한 것이 1925년이었다. 그들의 活動이 어느 程度의 단계에 도달한 후에야 그에 대한 反撥도 가능했으리라 보기 때문에 國民文學派의 形成을 1926年頃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30年代 初半期에 이르러 카프는 그 자체에서 빚어진 問題點과 거듭된 外部의 彈壓을 받고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組織活動이 계속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國民文學派는 당면의 적수를 상실, 集團活動의 原動力이 되어온 긴장감이 除去 당한때다가 정작 그들의 文學的 指向에도 여러가지 難點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30年代 中半期頃에 이르러는 그 輪廓이 흐려져버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白鑾, 『朝鮮新文學思潮史現代篇』(白楊堂, 1949), 제2장 참조.

경우부터 作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참고로 밝히면 國民文學派의 構成員은 李光洙, 金東仁, 金億, 朱耀翰, 崔南善, 卞榮魯, 鄭寅普, 孫晉泰, 李秉岐, 李殷相, 廉想涉, 朴鍾和, 梁柱東, 金永鎮, 鄭蘆風, 金聲近, 曹雲등이었다. 이 명단으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國民文學派는 實質的인 意味에서 1920年代 韓國文壇의 元老大家와 中堅들을 總網羅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손에 의해 展開된 文學活動의 意義 역시 그랬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 周邊에서 전개 되어온 文學活動은 그 表現媒體 자체를 예의없이 民族語에 의거해 왔다. 매양 民族의 言語를 택하는 게 文學活動인 이상 外來 이데올로기 보다 民族을 앞세워야 하리라고 본 國民文學派의 發想 자체에는 충분히 그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作業은 그 性格上 부득이 논증의 方法을 歷史主義的인 쪽에서 빌려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약간의 言及이 必要하리라 믿는다. 文學研究에 있어서 歷史主義的 方法은 그것이 內包한 難點 때문에 되풀이 論難의 對象이 되어 왔다. 특히 戰後 우리 周邊의 文學研究는 한 때 文學을 文學的 事實로만 보고자 하는 反歷史主義的이며 內在的 研究의 옹호자들에 의한 衝擊으로 긴장된 적이 있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文學研究에 있어서 歷史主義的인 方法은 文學 외의 사실로 文學을 寸斷해버리는 犯則의 常習犯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르네·윌렉도 지적된 바와같이 과연 文學이 言語의 自足한 存在일 뿐이며 그 理解와 評價가 作品外의 事實을 송두리체 排除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인가도 問題가 아닐 수 없다.²⁾ 文學의 올바른 理解를 위해 人間과 그들

2) René Wellek,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7. 여기서 Wellek은 비록 新批評이라고 할지라도 作品의 理解를 위해 歷史的 情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New Critics did not mean and could not be conceived to mean a denial of the relevance of historical information for the business of poetic interpretation. Words has their history; Genre and devices descend from a tradition; poems often refer to contemporary realities.

의 生活, 現實과 文化背景을 논하는 것이 禁物이라고는 하나 정작 우리가 表現媒體로 삼는 語彙들은 歷史的 產物이며 人間生活의 軌跡이기도 하다. 또한 作品을 쓴다는 것은 장르를 택하고 意匠을 취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런데 어떤 장르나 意匠도 習俗이나 傳統과 무관한 것은 없다. 이와같은 一連의 사실은 文學이 宿命的으로 歷史와 傳統, 人間 生活에 密着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미 歷史와 傳統에 密着되어 있는 文學을 論議함에 있어서 구태어 그런 것을 禁止, 排除해야겠다는 主張도 온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아직도 新批評의 영향력이 終熄되지 않은 年代에 R. 스피러가 쓴 反分析批評, 文學史 擁護論은 그런대로 우리에게 共感되는 바 크다.³⁾ 이 作業에서 援用되는 歷史主義的 方法的 妥當性이 그런데서 立證되기를 기대한다.

2

民族을 그 理念의 求心點으로 삼은 國民文學派의 活動 實績은 순수하게 文學的인 것에서 부터 教育, 社會등 文化 全般에 관계되는 것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제 그들을 정리, 항목화해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時調를 중심으로 한 民族의 文學樣式의 復興 試圖.

(2) 歷史小說 制作, 國土山河 禮讚 등을 통해 나타나는 民族精神 顯揚을 위한 活動.

(3) 國史研究, 古典 整理 등을 主軸으로 한 民族의 理念의 探求, 鼓吹 試圖.

(4) 기타 한국적인 것 全般에 걸친 관심과 發掘, 紹介 活動.

3) Robert E. Spiller, *Is Literary History Obsolete? The Third Dimension: Studies in Literary Histor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5), pp. 5~6.

첫째 時調를 中心으로 한 國民文學派의 民族的 文學樣式 復興 試圖은 그들의 理念이 民族文學의 建設이었던 데서 비롯된 必然的 歸結이었다. 文學活動에서 民族을 들고 나선 이상, 樣式에 있어서도 傳統的인 것, 固有한 것이 개발,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택해진 게 時調였던 것이다. 歌辭나 雜歌, 판소리 辭說들과는 달리 時調는 비교적 洗鍊된 文學樣式이었다. 거기에다 그 역사 또한 가장 오래된 아니라 國民文學派가 形成될 年代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各界各層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져온 것이기도 했다. 國民文學派의 時調復興運動은 물론 그런데 힘입었던 것이다.⁴⁾

한편 國民文學派의 時調復興試圖을 理論 쪽에서 보면 그 先陣을 담당 한 것은 六堂 崔南善이었다. 1926년 5월 『朝鮮文壇』을 통해 그는 「朝鮮 國民文學으로서의 時調」를 발표했다. 거기서 그는 時調를 가리켜 <朝鮮 中心의 放射性, 朝鮮語의 纖維組織이 가장 壓搾된 狀態에서 표현된 功든塔>⁵⁾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復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이 方面에 끼친 國民文學派의 重要 업적으로는 同上 「時調 胎盤으로서의 朝鮮民情」(『朝鮮文壇』 1926.6), 孫晉泰, 「時調와 時調에 表現된 朝鮮 사람」(『新民』, 1926.7), 康想涉, 「時調에 關하여」(『朝鮮日報』, 1926.6), 李秉岐, 「時調源流論」(『新生』, 1929.1~3), 李殷相, 「時調作法講座」(『文藝公論』, 1929.6),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時調가 우리 民族의 고유한 文學 장르임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促進케 하자는 데 있었다. 또한 이와 並行하여 創作活動을 통해 이에 寄與한 분들은 六堂 春園 및 鄭寅普, 李秉岐, 李殷相, 金永鎭, 朱耀翰, 卞榮魯

4) 國民文學派가 形成되기 이전에도 時調를 近代 文學化하고자 하는 試圖가 一部 文人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령 『少年』을 보면 六堂이 赤檀香이라는 필명을 써서 時調의 變形이라고 할 <新國風>의 試作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國民文學派의 時調復興運動은 완전한 의미에서 새로운 創案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5) 『朝鮮文壇』(16), p.4.

曹雲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 鄭寅普의 古套, 李秉岐의 抒情的 展開, 李殷相의 脫俗한 가락등은 각기 一家를 이룬 것이어서 비단 國民文學派의 活動으로서만이 아니라 韓國近代文學史上에 한 局面을 개척한 것이었다. 또한 여기서 반드시 擧論되어야 할 것이 『百八煩惱』의 刊行이었다. 『百八煩惱』는 六堂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근대문학사상 최초의 創作時調集으로 거기에는 「궁거워」이하 111편의 作品이 실려 있었다.

다음 國民文學派가 制作한 歷史小說로는 李光洙의 「麻衣太子」(1926), 「東明聖王建國記」(1926), 「端宗哀史」(1928), 「李舜臣」(1931), 金東仁의 「젊은 그들」(1930), 「해는 地平線에」(1932), 「雲峴宮의 봄」(1933), 尹白南의 「大盜傳」(1930), 「烽火」(1933) 등이 代表的인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들 歷史小說은 國民文學派가 試圖한 時調復興運動 다음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타났다. 그 까닭은 아마도 時調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補充하기 위해서 歷史小說이 택해진데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카프와 맞서기 위해서 國民文學派에게는 좀더 실속 있는 文學活動의 展開가 필요했다. 그런데 時調와 같은 短形詩歌로는 아무래도 그런 目的이 充分히 達成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그 代打者格으로 생각된 게 民族의 얼, 民族意識을 취급, 처리할 수 있는 歷史小說 制作이었을 것이다. 이와같은 우리 생각은 직접적인 證據를 통해 立證되기도 한다. 다음은 「端宗哀史」의 연재에 지음하여 李光洙가 한 말이다.

단종대왕처럼 만인의 동정의 눈물을 끌어내인 사람은 조선만 아니라 전세계로 보더라도 드물 것이다(中略). 더구나 조선인의 마음 조선인의 장채와 단치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분명한 선과 색채와 극단한 대조를 가지고 드러난 것은 역사 진폭을 떨어도 다시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부족한 몸의 힘과 마음의 힘이 허하는 대로 조선역사의 축도요, 조선인의 성격의 산 그림인 단종 대왕 사건을 그려 보려 한다.⁶⁾

한편 國民文學派가 國土 山河를 찾고 名勝 古蹟, 歷史의 옛자리 마다

6) 『東亞日報』, 1928. 1. 24.

예찬과 감격을 아까지 않은 까닭도 歷史小說 制作의 경우와 大同小異하다. 國土山河와 그 위에 散在해 있는 歷史의 터전들은 國民文學派에게 있어서 단순한 自然物이거나 過去 先人들의 生活 흔적으로 그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가 國民文學派에게 民族의 魂, 民族의 精神을 불러 일으키고 民族史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게 하는 刺戟劑였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六堂의 說明은 그 단적인 보기가 되는 것이다.

朝鮮의 國土는 山河 그대로 朝鮮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詩며 精神입니다(中略). 나는 朝鮮歷史의 작은 한 學徒요 朝鮮精神의 어설플 한 탐구자로 진실로 남다른 愛慕, 嘆美와 같이 무한한 긍금스러움을 이 山河大地에 가지는 者입니다. 자개돌 하나와 마른 나무 한 밀등에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흥미와 또 연상을 자아냅니다. 이것을 조금씩 色讀한 뒤로부터 朝鮮이 위대한 詩의 나라 哲學의 나라임을 알게 되고 또 完全詳細한 實物的 2.2. 歷史의 소유자임을 깨닫고 그리하여 쳐다볼수록 거룩한 朝鮮精神의 불기둥에 약한 視膜이 띄 많이 아득해졌습니다.⁷⁾

國民文學派에 의해 試圖된 이 方面의 活動으로는 崔南善, 李秉岐, 李光洙, 李殷相 등의 업적이 있다. 특히 崔南善에게는 單行本으로 上梓된 것만도 『尋春巡禮』(1926), 『白頭山觀參記』(1927), 『金剛禮讚』(1928), 등이 손꼽힌다. 그리고 이들 앞서 나온 『경부철도노래』(1908)나 후에 나온 『朝鮮遊覽歌』(1928) 역시 그 내용에서 볼 때 상계한 것들과 그 軌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또한 李殷相 역시 六堂에 못지 않는 熱度로 國土山河를 예찬했다. 그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이 「灣上踏靑記」, 「千里訪碑行」, 「江都遊記」, 「無等山紀行」, 「雪嶽行脚」등이다. 여기서 참고로 밝혀 두면 「灣上踏靑記」에서 鷲山은 <朝鮮의 大自然 앞에 나는 한 信徒 되기를 바라는 것이니>⁸⁾라고 하고 있을 정도다.

다음 國民文學派에 의한 民族의 理念의 探求 試圖는 그들의 發足이 카프의 안티·테에게 格인 位置를 취한데서 온 必然의 결과였다. 카프에

7) 『尋春巡禮』(白雲社, 1926), p.1.

8) 『鷲山文選』(永昌書館, 1942), p.4.

대해 안티·테에제 格인 位置에 있었기 때문에 國民文學派에게도 그들에 맞실만한 理念이 必要했다.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를 띄고 나타난 게 民族精神, 民族의 魂을 探求하는 理念 追求의 試圖였던 것이다.

한편 韓國史研究를 통한 民族의 理念의 探求 試圖에서 牛耳를 잡은 것은 六堂과 爲堂이었다. 六堂은 물론 최초의 新體詩作家, 新文館의 設立者, 青年運動家, 古典의 翻譯 整理者, 時調作家, 己未獨立宣言文의 起草者, 豪放한 文章을 驅使한 隨筆紀行文의 作者, 民族文化 全般에 걸쳐 관심을 표명한 의욕의 소유자등 다양한 마스크를 갖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가장 力點을 두었으며 또 畢生의 事業으로 推進한 것은 韓國史 研究였다.⁹⁾ 그리고 그의 韓國史는 또한 그것이 檀君時代를 頂點으로 펼쳐지는 民族의 理念 追究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자신의 言明을 통해 확인 된다. 다음은 그가 8.15후 反民 特委에 繫留되었을 때 쓴 「自列書」中 一部다.

대저 반세기에 걸치는 나의 一貫된 苦行이 國史研究, 國民文化 發揚에 있었음은 아마도 일반의 承認을 받을 것이요, 또 研究의 中心이 輕妄한 學徒의 手に 抹消 廢闕되려 한 國祖 檀君의 學理的 復活과 및 그들 中核으로 한 國民정신에 있었음은 줄잡아도 내 學究 過程을 보고 아시는 분이 否認치 못할 바이다.¹⁰⁾

다음 爲堂의 民族意識 探求 試圖는 「五千年間 朝鮮의 兪」(『東亞日報』1935)에 集約적으로 담겨 전한다. 題目을 통해서 이미 짐작되는 바와같이 이 글에서 爲堂이 노린 것은 단순한 民族史의 記述이 아니었다. 民族의 歷史를 더듬어 내림으로써 民族魂 또는 民族意識을 提示하고자 하는데 그의 意圖가 있었던 것이다.¹¹⁾

9) 이에 대해서는 拙稿, 「崔南善論」, 『韓國現代作家論』(民音社, 1976), 참조.

10) 『自由新聞』, 1939. 3. 10.

11) 『東亞日報』, 1935. 1. 16. 다음과 같은 部分 참조.

우리로서 우리의 歷史를 貴하다 함은 그 紙葉이나 行墨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다. 進해야 말하더라도 그 詞說을 貴하다는 것이 아니요 더 進해야 그 事實의 造端과 展布와 末果와——紛紜, 交互하여 내려오는 大幹 細枝에 이르

다음 우리 古典의 발글과 정리 分野에서 牛耳를 잡은 것 역시 六堂이었다. 일찍부터 그는 朝鮮光文會를 조직 『東史綱目』을 비롯하여 『訓蒙字會』, 『類合』, 『龍飛御天歌』, 『熱河日記』등 少不下 40種 가까운 한국고전의 정리와 紹介를 企圖했다. 또한 한국근대문화사상 최초의 古時調集인 『時調類聚』를 上梓한 것 역시 그것이며 坊刻本 『春香傳』과 『玉樓夢』등을 翻刻, 普及시킨 것 또한 그것이다. 한편 이 分野를 통한 寄與에는 震檀學會를 중심으로 한 在野 史學徒와 朝鮮語文研究會의 구성원인 趙潤濟, 孫晉泰, 李熙昇, 金在喆, 李丙壽, 金台俊, 李崇寧, 李在郁등이 한 몫을 담당했다. 물론 震檀學會나 朝鮮語文研究會의 構成員의 國民文學派에도 속한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活動으로 이루어진 당시 學界와 文化界의 분위기가 國民文學派의 시도와 지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不問可知的 일이다.

내재 民族文化 및 韓國의인 것, 全般에 걸친 國民文學派의 관심 역시 그들의 理念追求나 文學活動과 무관하지 않았다. 企圖하는 바 文學活動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民族文化, 또는 한국 자체에 대해 광범위에 긍한 素養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올바르게 理念을 追求하기 위해서도 치우침이 없이 多方面에 걸친 知識이 요구되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이 方面에서 이루어진 國民文學派의 발자취는 古蹟, 文化財의 保存, 重修 補助活動에서 부터 民謠, 民談, 說話 등의 채집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었다. 가령 1931년 李光洙는 壬辰亂 때의 民族的 英雄, 忠武公의 詞堂 重修를 돕기 위해 地方旅行을 떠났다. 그리고는 忠武公의 遺蹟地를 踏查, 그 報告書를 東亞日報에 연재하고¹²⁾ 이어 李舜臣을 主人公으로 한 역사소설까지를 制作하므로써 그의 理念的

러는 歷史의 價値 이에 있지 아니함이 아니로되 이것만으로는 오히려 貴할 것이 없다(中略). 자취로 조차 그 일이 나타나고 片時的 閃現하는 그 「일」로 조차 千秋, 萬祀의 一貫되는 大脊柱——嚴然히 나타날새 事蹟이 이에 貴하고 歷史 | 이에 貴한 것이다.

12) 「忠武公遺蹟地巡禮紀行」, 『東亞日報』, 1931. 5. 21~6. 8.

所在가 어디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린 바 있다.

民謠, 民譚 등의 채집과 有形, 無形文化財의 계승, 보호 試圖은 李殷相, 孫晉泰, 崔南善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李殷相의 「靑孺民謠小考」(『東光』 1926. 11), 「鄉歌의 歌謠史的 地位」(『現代公論』, 1927. 9), 孫晉泰의 『朝鮮民間說話의 研究』(『新民』, 1927. 7~1928. 9), 및 六堂의 神話, 傳說, 民譚, 民俗 등全般에 걸쳐서 이루어진 방대한 採集, 紹介 등이 그 보기가 되는 것들이다. 한편 이상 國民文學派의 活動에 대한 考察은 물론 심하게 圖式化된 것이다. 그리고 圖式化란 언제나 그렇듯 몇가지 規準에 의해 복잡한 내용을 재단하므로써 심하게 그들을 單純化시켜 버린다. 이제 우리가 그와같은 사정을 고려에 넣어 본다면 實際 國民文學派의 活動이 여기서 이루어진 要約, 整理의 경우보다 한층 多樣하고 또 意義 있는 것들로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3

多様な 側面을 들어내는 國民文學派의 活動은 우선 그 史的인 意義를 그들이 남긴 作品이 지니는 바 格調를 통해 論議해 볼 수 있다. 카프의 안티·테에게 格으로 形成된 것이기는 했으나 國民文學派는 그들의 敵手들처럼 文學을 이데올로기의 侍女로 만들지는 않았다. 물론 그들도 民族이라는 理念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카프처럼 이데올로기의 양상한 殘骸로서가 아니라 實際作品이 빚어내는 藝術的 品格을 통해 살리고자 한 게 國民文學派였다. 여기서 우선 그와같은 사실은 1930年度에서 193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上梓된 詩集을 檢討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참고로 밝히면 國民文學派와 카프를 對比시키기 위해 1930年代 前半期가 택해진 까닭은 별 것이 아니다. 비록 그 形成은 1926年度の 일이라고 하더라도 國民文學派가 어느 程度 자리를 잡고 또 그

結果를 詞華集으로 낼 수 있기까지는 最少限 4.5年間の 時間이 所要되
었으리라고 본다. 이것이 30年度로 上限線이 잡혀진 이유다. 또한 30年
代 中半期를 지나던 이미 밝힌 바와같이 國民文學派나 카프는 다같이 그
集團的인 活動을 終熄시켜버렸다. 따라서 30年代 中半期 이후는 兩者를
對比하기 위한 資料부터가 充分하지 못하다. 우리가 國民文學派對 카프
의 對比를 위해 30年代 前半期를 잡은 까닭은 이상 사정이 考慮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周邊에서 이 期間 동안에 上梓한 重要詩集으로는
朱耀翰, 『봉사꽃(鳳仙花)』(1930.10), 『카프 詩人集』(1931.2), 梁柱東,
『朝鮮의 脈搏』(1932.2), 『鸞山時調集』(1932.4), 毛允淑, 『빛나는 地域』
(1933.10), 『鄭芝裕詩集』(1935.10), 『永郎詩集』(1935.11) 등이다. 그런
데 이상 7卷의 詩集中 카프 系에 속하는 것으로는 그들의 文學部가 편한
詩人集 한 卷이 있을 뿐이다. 이 量的 格差부터가 우선 問題다. 그리고
이와같은 格差는 作品의 美的인 結構를 問題 삼는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들어난다. 다음 보기는 카프 詞華集 허두에 놓인 金昌述의 作品 一部다.

午前 六時

길 떠나려는 汽車가 발버둥치는 아침 봄이라지만 칼날같은 서릿 바람이 大地
를 호령한다(中略).

깊은 信念으로 낸서한 그것만을

그 힘은

우리를 채찍질 하였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지 안하였는가?

몇 分동안의 對面을 오직 묵묵히 보내는 그대와 나

이 沈痛한 공기를 기관차는 헤치고 가는 구나 끊임없는

×××××의 勇進과도 같이

「그러면 부대 편안히!」

曠野를 지나 大江을 건너

汽車는 北으로 北으로 疾走한다

壯快히 壯快히

——「汽車는 北으로 北으로」

카프의 모든 作品이 그런 것과 같이 이 作品의 골격이라고 할 것도 目的意識의 強調에 있는듯 보인다. 그리고 그런 目的意識은 달리는 汽車를 등장시키므로서 전투의욕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象徵化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作品에서 빚어진 言語의 이완성은 전혀 作者의 意圖를 살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作品의 짜임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內容傳達의 技量으로 보아도 失敗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詩의 作者는 한 때 그들 자체내에서 〈多少라도 우리 案〉¹³⁾에 合致되는 作品으로 評價되기까지 했다. 이제 이 作品과 國民文學派의 詞華集에 收錄된 作品——卞榮魯「봄비」, 李殷相「가끔아」 등을 對比시켜 보면 兩者 사이에 介在하는 格差가 좀더 明快하게 들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國民文學派 우위의 判定을 가능케 한다. 한편 作品活動의 前提가 된 또다른 論理的 根據를 통해서 보아도 國民文學派에게는 뚜렷이 들어나는 強點이 있었다.

우선 日帝治下에 있어서 韓國文學은 抵抗文學의 性格을 띠 수밖에 없었다. 세삼 밝힐 것도 없이 日帝가 1910年度 이후 韓半島에서 노린 것은 우리 民族의 永久完全한 支配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永久 完全한 支配란 우리 民族의 精神的인 漂白化 내지는 抹消를 통해 달성될 일이었다. 精神的으로 이어 있는 民族은 不斷히 民族의 抵抗을 企圖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永久完全한 支配가 效果의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民族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정은 전혀 逆일 수밖에 없었다. 만약 日帝의 企圖대로 精神的인 漂白化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 民族이 奴隸狀態에서 헤어날 길은 전혀 없었다. 즉 노예상태에서 헤어나기 위해 日帝治下에서 우리 民族은 부득이 民族의 抵抗을 試圖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이와같은 論理의 前提에서 文學만이 그 例外가 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13) 尹基鼎, 「年評」, 白鐵, *op. cit.*,에서 再引用

다음 가장 성공적인 의미에서 日帝治下の 韓國文學이 抵抗文學인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신적 基盤이 民族 편에 놓여져야 했다. 우선 일반적으로 植民地體制下에서 전개되는 抵抗運動은 大衆의 呼應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본래 植民地體制란 유능한 정보, 사찰기구, 잘 짜여진 행정, 경찰력과 강한 武裝兵力, 및 방대한 경제력을 토대로 구축된다. 그에 대항하여 民族的 抵抗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범위에 공한 大衆의 協調와 呼應이 필수불가결의 要件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日帝治下에 있어서 大衆이란 곧 民族 전체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본래 우리 民族은 歷史, 文化的背景, 住居環境과 血統을 같이 하는 單一民族이었다. 따라서 그 利害關係와 感情 역시 地域, 階層, 部類를 超越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民族全體가 당면한 難題 解釋決을 위해서 階層, 地域, 部類의 差異에서 벗어나는 乖離關係는 存在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데에 우리가 日帝治下の 大衆=한국 民族이라는 等式關係를 세울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미 民族全體가 抵抗의 主體임이 들어난 이상 日帝治下の 民族的 抵抗이 어떤 양상의 것이어야 할 까도 스스로 들어난다고 보겠다. 즉 그 目的이 效果的으로 達成되기 위해서 日帝治下の 抵抗은 必然的으로 民族에 土蠶를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文學이 그 例外는 아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것은 國民文學派의 정신적 지향이다. 앞에서 이미 살핀 바와같이 그들의 行動理念에서 核이 된 것은 분명히 民族이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가지 단정을 가능케 한다. 적어도 그 論理的 根據라는 大前提에서 볼 때 國民文學派가 우리 文學史에서는 최초로 나타난 뜻있는 集團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게 곧 그것이다. 그러나 國民文學派가 차지하는 史的意義는 단순히 그들이 民族의 편에 섰다는 사실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들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에 形成되었으며 또 空間上으로

도 주목할만한 위치에서 있었다. 國民文學派가 대두된 것은 이미 밝힌 바와같이 1920년대 中半期를 지나서였다. 그리고 이 時期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 20년대 中半期란 3.1運動의 巨大한 波瀾가 일단 물러 갔을 때를 가리킨다. 그리고 3.1運動은 우리 民族이 가진 최초의 擧族的 動員이었다. 물론 그것은 一次大戰後에 양성된 民族自決의 原則에 자극을 받은 것이었고 또 어느 모로 볼 때는 自然發生的인 側面을 띤 것이었다. 그러나 問題는 이 充分히 意圖되지 않았고 또 外部의 衝擊에 의해 觸發된 運動이 우리 民族史에서 初有라고 할 정도로 擧族的 動員을 이룩해 낸 점에 있다. 論者에 따라서는 韓國近代史상의 大衆動員을 세 段階로 나누고 그 가운데서 3.1運動을 그 完成으로 보면서 民族的 動員이란 이름을 부친 예도 있을 정도다.¹⁴⁾ 그런데 民族的 動員은 民族的 動員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차례의 運動으로 끝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리 民族의 立場에서 볼 때 반드시 그것은 理念化되어 앞으로 展開될 民族史의 여러 局面에서 보다 뜻 있게 계승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繼承은 물론 一次的으로 한 차례 運動의 물결이 지나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일이었다. 다행히 國民文學派는 理念的으로도 民族의 探求를 試圖한 集團이었다. 그리고 그 形成은 20年代 後半期에 이루어졌다. 특히 그들의 擡頭 時期가 注目되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 民族文學運動은 또 가능한 限 本土에서 그것도 政治, 經濟, 文化, 教育등 중심지에서 試圖되어야 했다. 一切 民族運動이 大衆의 呼應 協調를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힌 바와

14)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chapter 6. 참조. 참고로 밝히면 여기서 Henderson은 한국근대사에 나타나는 Mass mobilization의 세 類型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Religious mobilization—衛正斥邪, 東學, 初期義兵, intellectual mobilization—獨立協會, national mobilization—3.1運動.

같다. 大衆의 呼應, 協調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呼吸을 같이 해야 한다. 그들의 生活과 苦難, 現實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못하고는 그들의 눈길을 이끌어 들일 수 없다. 관심을 모아들이기에 失敗하고야 呼應과 協調를 바라는 것 조차가 무리다. 한편 大衆과 呼吸을 같이 하는 일은 물론 同胞와 親知가 드문 海外에서 제대로 遂行되지 않는다. 一切民族運動의 本據地가 被支配民族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가지 惡條件도 아울러 갖추고 있는 植民地體制下의 本土가 되어야 할 所以가 여기에 있다. 또한 어느 의미에서 民族運動은 啓蒙, 教育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血緣과 利害, 文化的背景이 共通된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도 가르치고 일깨우기 전에는 다시 民衆을 抵抗運動에 가담케할 수 없다. 더욱이나 植民地體制란 의식적으로 被支配民族을 그런 것에서 부터 거세, 망각시키고자 하는 企圖가 支配的인 자리를 차지하는 體制다. 결코 有利하다고 볼 수 없는 그와같은 狀況 속에서 사실을 알리고 民族意識을 일깨우는 일은 그러므로 民族運動의 本論이 된다. 한편 그 活動이 啓蒙, 教育의 측면도 띠어야 하리라는 民族運動의 전제에 비추어 볼 때 政治, 經濟, 文化, 教育의 中心地가 그 本據地로 택해져야 할 까닭도 스스로 明白해진다. 한마디로 그런 곳에서 이루어져야 그 영향력의 폭도 그만큼 키지리라는 三段論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조금달라지지만 文化運動理論家 가운데는 啓蒙, 教育活動의 이와같은 側面에 着眼 根本的으로 그런 일이 都市 中心的인 性向을 띄는 것이라고 본 例도있다.¹⁵⁾ 都市 이외의 지역, 곧 農村과 僻地에서는 交通부더가 불편하다. 적은 努力으로 보다 훌륭한 成果를 얻어야 하는 啓蒙教育活動에서 都市가 有利한 位置에 설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생각들에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國民文學派가 차지한 空間의 舞臺가 아주 적절했다는 사실이 곧 그것이다. 구태어 밝힐 것도

15) Joshua A. Fishman, *Language and Nationalism*(Rowley, 1973), pp.17~18.

없이 그들의 活動 本據地는 韓半島였으며 그것 도 그中核을 차지하 서울을 原點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 이외의 경우는 사정이 그와같지 못했다. 檢閱과 規制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利點이 있기는 했으나 一部 文人들의 作品活動은 上海나 沿海洲 또는 美國에서 이루어졌다. 필요로 하는 空間的 利點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들 業績이 社會的 反應을 일으키지 못한채 休紙化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그에 反해서 國民文學派는 民族文學活動을 위해서 거의 理想의이라고 할 活動의 本據地까지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념으로 얻어낸 利點이며 幸運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일 역시 그들이 차지하는 史的意義를 위해서는 스러스가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셋째 國民文學派가 取한 文學的 態度는 또다른 角度에서도 意義가 있었다. 日帝治下의 民族運動을 抵抗運動으로 보고 民族을 그 抵抗의 主體로 본 것은 國民文學派에 한한 것이 아니라 기타 民族主義者들과 품고 있었던 생각이다. 가령 丹齋 申采浩 같은 분은 그 좋은 보기가 될수 있는 경우다. 朝鮮革命宣言에서 丹齋는 좀더 激한 목소리로 韓國民族의 살 길이 日帝를 韓半島에서 구축하는 데 있다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民衆 곧 民族을 革命의 大本營이라고 宣言하고 있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이와같은 大前提 다음 그가 편 몇가지 論旨는 그 뜻을 적지 않게 우리와 달리한다. 가령 그가 抗日抵抗의 目的 貫徹에 汲汲한 나머지 좀 性急하게 文化와 文學活動을 規定하고 있는 게 그것이다. 丹齋의 주장에 의하면 植民地體制下에서 이루어지는 一切의 合法的 活動은 奴隸狀態의 延長

16) 『丹齋申采浩全集』(乙酉文化社, 1972), p.20.

……이제 破壞와 建設이 하나이오 둘이 아닌 줄 알진대 民衆의 破壞 앞에는 반드시 民衆의 建設이 있는 줄 알진대, 現在 朝鮮民衆은 오직 民衆의 暴力으로 新朝鮮建設의 障礙인 強盜 日本 勢力을 破壞할 것뿐인 줄 알진대, 朝鮮民衆이 한편이 되고 日本 強盜가 한편이 되어 내가 亡하지 아니하면 내가 亡하게 된 『의나무 다리 위』에 선 줄 알진대 우리 二千萬民衆은 一致로 暴力 破壞의 길로 나아가자니라 民衆은 우리 革命의 大本營이다.

을 청원하는 행위가 된다. 植民地 體制下에서 一切의 活動은 日帝의 檢閱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日帝가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許容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合法的으로 이루어지는 一切 活動은 非抵抗, 妥協, 奴隸狀態의 延長行爲라는 결론의 導出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丹齋의 이와같은 論法에 多少의 무리가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日帝治下에서 制作, 發表된 一切의 文學作品도 非抵抗, 妥協, 植民地體制 迎合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은 상당수의 作品이 있다. 다음에 드는 金永郎의 作品은 이런 경우의 우리에게 한 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내 가슴에 毒을 잔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毒한 일 없는 새로 뽑은 毒
 빗은 그 무서운 毒 그만 흠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毒이 선뜻 빗도 害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毒 안차고 살아도 너지 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자라서 모래알이 될 것임을
 <虛無한티!> 毒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虛無한티!>
 허나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산채 짐승의 밤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毒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魂 건지기 위하여.

——「毒을 차고」全文

이 作品에서 毒은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한 결의로,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의 상징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3련 마지막 두 줄로 金永郎의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도 대개 짐작된다.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말긴 신세임을 일》. 일적 永郎은 즐겨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陰影을 가벼운 가락에 실어 읊은 民謠調 抒情詩人이었다. 그의 作品은 특히 內面 空間의 探求라든가 그에서 빚어진 苦惱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기로 이름이 있었다. 그런 그가 내세운 이리 승냥이가 벼란간 일어난 惡이라든가 否定的 要素의 일반적인 상징일 성실지는 않다. 그리고 이와같은 생각은 이 作品이 쓰여진 年代를 考慮에 넣어 볼 때 더욱 확정적인 게 된다. 이 作品이 쓰여진 것은 1939년 11월이었다. 그때 이미 日帝는 各級學校에서 朝鮮語科目을 廢止했다. 그리고 이어 志願兵制 實施・創氏 改名 강요, 우리말의 全面 使用 禁止등이 強行되었다. 그런 狀況 속에서 永郎은 그의 純粹조차를 지킬 길이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는 그의 精神的 生命 곧 純粹라든가 詩를 쓸 言語마저를 빼앗아 가는 日帝로 보아야 한다. 日帝를 이리 승냥이에 비유하고 그 위협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節操를 지켰다는 점에서 볼 때 이 詩는 어떻게 抗日抵抗의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 詩는 당시 總督府의 檢閱을 받는 文藝誌 「文章」에 게재되었다. 만약 丹齋의 말이 그대로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實現된 셈이다. 그렇다면 日帝가 失手를 犯했거나 寬大히 보아 넘긴 것인가. 여기에서 그렇다는 答이 나올 程度로 日帝가 어리석은 統治者는 아니었다. 또한 當時 狀況은 그들의 本國에서 조차 無差別 拘禁과 投獄이 恣行되고 있었을 때다. 日帝가 특별히 우리 詩人에게만 寬容을 베풀었은 가능성도 없다. 결국 丹齋式 생각에는 한 가지 盲點이 있었다. 본래 文學 특히 詩는 象徴的인 言語를 쓴다. 그리고 이 경우 象徴的인 言語란 반드시 A를 A로 提示하지는 않는 言語를 가리킨다. A라는 사실에 대해 항상 다른 等價物을 代置시키는데 象徴的인 言語의 妙味가 있다. 그리고 A가 A아닌 것으로 提示되기 때문에 文學은 드물지 않게 그 內容의 偽裝이 가능한 것이다. 永郎의 詩가 日帝의 檢閱網에 걸리지 않은 것은

그런데 까닭이 있었다. 그리고 丹齋式 文學觀으로는 文學의 이와같은 側面이 說明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國民文學派 쪽으로 옮겨지면 그 사정은 180° 달라진다. 이미 밝힌 바와같이 國民文學派는 民族文學運動을 理念 一邊倒, 圖式的인 立場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데 두리를 벗어나고자 했다. 결과 그들의 文學은 民族의 要求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文學으로서의 眞實도 살릴 수 있는 게 되었다. 이것이 國民文學派가 獲得하게 된 또다른 意義다.

4

물론 國民文學派에게는 稱譽되어야 할 側面과 함께 捨象되어야 할 部分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國民文學派의 限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國民文學派가 지니고 있는 첫째 限界는 그들이 建設하고자 하는 民族文學 내지 韓國的文學을 너무 平面的이며 安易한 데서 求한데 있었던 것 같다. 일찍 우리가 民族文學 또는 韓國의인 文學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단순하게 한글로 쓰여진 文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때 韓國文學이 우리 民族의 生活이나 過去의 일에 限한 것일 수도 없었다. 또한 그저 平面的인 立場에서 과거 우리가 使用한 장르나 스타일을 復活시키는 것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들 一連의 事實들은 國民文學派에게 잘 認識되지 않은듯 보인다.

한마디로 民族을 理念의 求心點으로 한 文學, 곧 民族文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民族과 文學이라는 두 개 異質的 要素의 調和·融合을 위한 試圖를 先行시키는 일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民族을 形成시키는 諸要素는 곧 血緣關係·地緣·政治·經濟·文化의 共同性과 歷史的 運命의 連繫性이다. 그런데 이들이 一括 問題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中 어느 것을 택해 보아도 時間과 空間概念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야기가 文學의 경우에 이르면 그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본래 文學이 노리는 것은 永遠한 意味와 價値를 지니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이 指向하는 바 또한 求久性・恒久性으로 이야기되는 超時空의 世界다. 따라서 民族文學의 建設은 이 모순・충돌하는 두 要素를 效果的으로 調和・融合시키려고 하는 苦惱와 함께 出發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 낼 수 있는 範圍에서 볼 때 國民文學派의 試圖들에는 이와같은 자취가 별로 뚜렷이 들어나지 않는다.

우선 民族文學建設을 위한 國民文學派의 試圖 가운데 하나로 韓國文學의 概念規定의 경우가 있다. 國民文學派가 建設하고자 한 게 民族文學이었다면 또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固有名詞化는 韓國+文學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文學이란 어떤 것인가. 정작 그 테두리를 어디에서 잡아야 한 것인가 등 質問에 解答을 提示하고자 하는 上揭 國民文學派의 試圖에는 어떠한 그 나름의 意義가 賦與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훌륭한 論理上 발판이 구축되었음에도 不拘하고 정작 實際活動에 있어서는 問題點을 남긴 게 國民文學派였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韓國文學이라고 할 때 一次 그것은 우리 民族의 過去 文學遺産을 모두 抱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國民文學派는 이와같은 論理的 前提에 盲目인채 거의 潔白症 患者와 같은 態度로 韓國文學의 테두리를 좁히려고 했던 것이다. 다음은 이와같은 경우의 한 보기가 되는 春園의 글 一部分이다.

年前 京城帝大 朝鮮文學科에서는 朝鮮文學 演習用 教科書로 『擊蒙要訣』을 使用하였다고 한다. (中略) 이는 그 大學 朝鮮文學科의 主任되는 朝鮮文學 大家 某教授의 選擇이니 가장 權威 있는 選擇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不幸히 淺見寡聞한 나로는 『擊蒙要訣』이 朝鮮文學이란 말은 奇想天外로 밖에 아니 들린다. (中略) 만일 朝鮮에 文學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가르칠 것은 決코 『擊蒙要訣』도 아니요 『九雲夢』도 아닐 것이다. (여기서 李光洙는 『九雲夢』을 漢文 原作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 필자 주). 거기서 가르칠 것은 新羅 鄉歌, 時調.

『春香傳』, 現代朝鮮作家的 作品일 것이다. 만일 포우프의 호우머 英譯이 英文學의 教科書가 되는 모양으로 中國文學, 其他 外國文學中에서 朝鮮文學으로 써갈 翻譯된 것이면, 그것은 朝鮮文學의 教科書로 써도 좋다. 그러나 아무리 하더라도 『擊蒙要訣』이나 『九雲夢』(正音譯은 除外하고) 『申紫霞詩集』 같은 것은 天地가 새로 開闢이 된 뒤에는 몰라도 그 前에 朝鮮文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文學을 위하여서는 太學館은 이야기책 보는 村家 사람만 못하였고, 大提學, 副提學은 무당과 妓生만 못하였던 것이다.

朝鮮文學이란 무엇이뇨.

『朝鮮文으로 쓴 文學이라!』¹⁷⁾

이상과 같은 李光洙의 생각을 요약하면 결국 韓國文學=한글을 表現 媒體로 한 文學이라는 등식관계를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提起되는 問題는 그 論理의 자연적인 歸結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뿐이었다. 우선 우리가 韓國文學을 問題삼게 된 것은 그것이 民族文學建設을 위한 한 方便이 될 수 있는 점에 그 意義가 있었다. 그리고 民族文學이란 말할 것은 없이 民族의 精神遺產을 總體的인 立場에서 그것도 가장 要諦를 뽑아서 繼承하는 作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光洙의 韓國文學의 概念規定으로는 그와같은 民族文學建設의 地平이 打開될 수 없었다.

또한 國民文學派는 古典의인 樣式의 復興試圖에 있어서도 너무 過去에 치무친 느낌이 있었다. 본래 國民文學派가 古典의인 樣式을 復興코자 한 것은 傳統的인 것을 繼承·伸張시키고자 한데 그 뜻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國民文學派의 指向이 民族文學의 建設에 있었음을 勘案해 볼 때 매우 당연한 사태의 歸結이었다. 民族文學建設에서 民族을 認識한다는 것은 그 文化傳統을 認識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國民文學派가 이 方面에 보인 配慮에는 당연했다는 評價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國民文學派는 이 樣式의 繼承에서 前提되어야 할 것이

17) 李光洙, 「朝鮮文學의 概念」, 『新生』(1929. 1), 『李光洙全集』(16), pp.175~

무언인가를 알지 못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樣式的 繼承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것은 과거 있어온 形態나 文體를 그대로 踏襲하는 게 아니었다. 본래 人間의 趣向이란 時代나 狀況과 函數關係에 놓인다. 그리고 文學 作品의 形態와 文體는 一次的으로 趣向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미 趣向이 變하는 데 樣式과 그 內容인 形態, 文體만을 固定 不可變의 實體로 보는 行爲야 말로 妄想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같은 文學의 基礎理論은 國民文學派에게 충분히 認識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그 가장 刻銘한 자취 가운데 하나로 時調復興을 위한 試圖의 경우를 들 수 있다.

時調는 過去人이 過去の 時代精神, 過去의 生活意識을 表現함에 그치니까 現代人인 우리에게 交涉이 없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歷史가 그러한 것과 같이 過去는 現在의 母胎이다. 그 意識이나 感覺의 深淺 또는 相異는 있을지라도 거기에 朝鮮人의 呼吸, 朝鮮人의 魂이 綿綿히 흐르고 얽히고 더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藝術일수록 思想, 觀念, 感情, 感覺의 相異를 超越하여 朝鮮의이라는 이름 아래의 우리를 힘 있게 불러 줄 것이다. 그 대신에 그것을 朝鮮人 以外的 사람이 읽으면 一般的으로 사람의 情緒라든지 感覺이라든지 또는 藝術的 價値를 感得할 수는 있어도 朝鮮人이 發見한 그 무엇을 모를 것이다. 그 만큼 時調는 우리의 것이요 우리가 가꾸어야 할 것이다.¹⁸⁾

여기 나타나는 바와같이 國民文學派의 時調復興試圖는 단순히 時調가 가장 한국적인 形態를 가졌으며 또 가장 깊숙히 우리 民族의 骨髓에 박혀온 藝術이기 때문이라는 次元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傳統을 繼承하는 일은 過去를 過去 그대로 習得하는 일이 아니었다. 보다 그것은 그들을 當代의 狀況에 적용, 作用케 하는 努力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時調復興을 위한 國民文學派의 試圖에서 우리는 이런 論理의 前提가 認識된 자취를 明白히 파악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歷史小說의 경우에도 適用된다. 얼핏 우리가 歷史小說이라고 할 때 그것을 곧 歷史的 事實에 取材한 作品으
18) 廉想涉, 「時調에 對하여」, 『朝鮮日報』1926. 12. 6.

로 집작하기 쉽다. 그러나 과거 사실만을 取材하고 當代의 現實에 무관한 作品이라면 그것은 史話, 野談일 수는 있어도 歷史小說은 아닐 것이다. 歷史小說이란 좀더 크게 볼 때 歷史에 取材한 文學의 한 장르다. 그리고 文學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時空을 超越하는 意味와 함께 한 時代, 한 地域의 現實에 作用할 수 있는 作家意識이 내비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國民文學派의 構成員이 制作해낸 作品을 보면 그런 要求는 손쉽게 充足되지 않는다. 가령 『端宗哀史』에 등장한 것은 封建王朝의 王과 王子였고 또 그 側近인 臣下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哀歡과 生活, 倫理와 忠節이 作品의 골격을 이룬다. 『李舜臣』 역시 民族的 英雄의 行狀을 中心으로 한 歷史 小說이다. 물론 거기서 民族的 긍지는 어느 정도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긍지가 과거 회상의 위치에 머물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그에 比한다면 『젊은 그들』이나 『雲峴宮의 봄』에는 좀더 우리와 가까운 時期가 背景으로 등장하기는 한다. 두 소설의 時空的인 舞臺는 開港 직후의 한 반도다. 그리고 거기에는 黎明期의 民族史와 그를 위해 활약하는 先覺者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進行形의 形態로 그려져 있다기 보다는 過去의 人物들로 다루어진 데 그친다. 그것으로 1920年代 後半期 또는 1930年代 前半期에 處한 우리 주변의 生活에 力學的 相關關係가 樹立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기타 『大盜傳』, 『烽火』 등에 이르러서는 구태어 여기서 學論의 필요조차를 느끼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들이 재미를 위주로 한 通俗小說 이상의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일찍 金基鎮은 國民文學派의 歷史小說에 대해 懷古, 無氣力, 觀念 등의 形容사를 써서 攻擊을 가했다. 그에 의하면 國民文學派의 作品들에는 살아 있는 人間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忠義觀念>의 化身이 등장하며, 苦惱하고 失敗하는 現實의 人物이 아니라 虛像에 그치는 非現實의 英雄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作品은 社會的 脈絡 속에서 의의가 있는

문제에 密着되어 있는게 아니라 그저 私的인 行動, 곧 忠節과 愛情問題가 다루어진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¹⁹⁾ 물론 이상 金基鎭의 생각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는 國民文學派의 小說에 나타나는 非科學的方法을 非難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科學이 社會科學을 의미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모든 文學이 科學的인 方法을 택해야 할 것인가는 問題다. 우리에게 文學이란 반드시 그 方法을 科學에서 빌리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의 存在가 되어야 하는 것이 文學이기도 하다. 그걸 科學 萬能的인 입장에서 본대 金基鎭의 限界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상 檢討된 歷史小說들의 缺陷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지적에는 또 首肯되어야 할 點이 없지 않다. 어쨌든 歷史小說을 통한 國民文學派의 試圖에는 반드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國民文學派의 民族觀에는 또다른 問題가 있었다. 그런 사실은 李光洙와 崔南善의 경우를 통해 集約的으로 들어난다. 먼저 李光洙의 民族에 대한 생각은 그 특성이 向內的이라는데 있었다. 『民族改造論』을 통해서보면 어쨌든 李光洙가 民族主義者였다는 사실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었다. 언제나 그가 念願한 것은 우리 民族의 幸福, 繁榮이었다. 그는 또한 民族의 幸福과 繁榮은 바랐기때문에 植民地體制下에서 呻吟하는 民族的不幸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그의 많은 글에서 그와같은 자취가 나타난다. 그런데 李光洙는 우리 民族이 겪고 있는 不幸의 原因을 民族 內部에서 구하여 우리가 지지고 있는 缺陷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 缺陷으로 道德의 墮落을 손꼽았다. 虛偽, 非社會的의 利己心, 懈怠, 無信, 法儒, 社會性의 缺乏등이 곧 그 내용들이다.²⁰⁾

道德의 墮落에 民族의 겪는 不幸의 要因을 求하고 있는 李光洙는 또

19) 白鐵 *op. cit.*, pp. 160~161.에서 再引用.

20) 李光洙, 「民族改造論」, 『開闢』(23)(1922.5), pp.36~37.

한 그 止揚, 克服策으로 個人的 自覺과 人格修養을 통한 集團의 活動을 提唱했다. 그에 의하면 自覺한 個人이 集團을 이루고 그 團體가 影響力을 行使하면서 大衆을 의결어 가면 곧 우리 民族의 道德의 墮落이 克服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그의 생각은 상계한 「民族改造論」에서 뿐만 아니라 그를 전후해서 쓰여진 「少年에게」(『開闢』, 1923. 3), 「젊은 朝鮮人의 所願」(『東亞日報』 1928. 9. 4~19), 「朝鮮民族運動의 三基礎事業」(『東光』, 1932. 2), 「옛 朝鮮人의 根本道德」(『東光』 1932. 6), 「朝鮮民族論」(『東光叢書』 1933. 6—7), 「民族에 관한 몇가지 생각」(『東光叢書』, 1935. 10)등 글을 통해서도 비슷한 語調로 되풀이 된다. 미루어 이 무렵의 李光洙가 어떤 民族觀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짐작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李光洙의 民族觀은 그 발표 당시부터 매우 激烈한 反撥을 샀다. 그의 民族의 不幸=道德의 墮落說에 대해서는 正式으로 그 根據를 제시하라는 反駁文이 나왔는가 하면²¹⁾ 一部 過激分子가운데는 暴力을 行使하는 사태까지가 惹起되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보면 設使 李光洙의 發想이 그릇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反應이 감정적 言辭나 힘을 行使하는 따위 일로 표시되어야 했을까는 疑問이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 바람직한 일은 論理的 矛盾의 指摘과 그를 통한 止揚, 克服策의 模索일 것이다. 잘못된 事態에 대한 止揚, 克服은 感情的 行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때일수록 차분히 事態를 吟味, 檢討하는 마음의 姿勢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李光洙의 民族觀에도 물론 잘못된 점이 있었다. 우선 우리가 겪는 不幸을 고스란히 그는 우리 자신의 허물에 돌렸다. 그러나 그것은 全的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日帝 植民地體制下에서 우리 民族이 겪는 不幸은 우선 우리가 主權을 喪失한 데 있었다. 그

21) 崔元淳, 「李春園에게 問하노라」, 『東亞日報』, 1922. 6. 4.

리고 우리가 主權을 喪失한 것은 一次的으로 그것이 日帝侵略에 의한 것이었지 우리 民族의 잘못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었다. 設使 우리가 道德的으로 다락을 하지 않았다고해도 日帝는 우리 主權을 強奪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民族의 不幸=道德的 墮落 起因說은 그 成立根據가 稀薄하게 되는 셈이다. 어쨌든 李光洙의 民族觀은 적지 않게 歪曲되어 있었다. 후에 그에 대해 歷史意識의 缺如라는²²⁾ 批評이 加해진 것은 아주 당연한 論理의 歸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체 어디서 李光洙의 그릇된 民族觀이 빚어졌을까 하는 사실이다. 그에 대한 應答을 마련하는 일은 물론 容易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가지 推測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李光洙의 安易한 現實把握態度다. 즉 李光洙는 정작 民族이 무엇이며 韓國民族의 性格이 어떤 것인가 그들의 缺陷은 무엇이며, 그 缺陷이 어떻게 克服될 수 있는가 등의 問題를 차분히 파고들지 않았다. 결과 그는 한갓된 推測과 假說을 통해 民族의 指向點을 論斷해버렸다. 그의 過誤는 이런데서 이미 犯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李光洙의 過誤를 補完해낼 사람으로 우리는 崔南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李光洙와 달리 崔南善은 學究派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이미 밝힌 바와같이 韓國史에 관해서 방대한 資料를 整理中에 있었고 또한 대단한 精力을 기우려 그 體系化를 試圖한 분이였다. 그러므로 理論的인 立場에서 民族의 本質을 究明해내기에는 매우 좋은 位置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의 그와같은 좋은 前提도 정작 必要로 하는 또하나의 資格要件을 갖추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結果와는 距離가 있는 게 되어버렸다.

韓國史 研究에 있어서 崔南善은 科學的인 方法, 客觀的인 事實 分析을

22) 金鵬九, 「新文學 草創期の 啓蒙思想과 近代의 自我」, 『韓國人과 文學思想』 (一潮閣, 1964), pp.73~76. 참조.

加하는 대신 매우 主情的인 立場을 취했다. 가령 그는 檀君時代研究에서 檀君(그는 檀君이라고 표기한다)이 君長이라는 것과 그것을 光明思想과 連結시키기 위해서 一連의 語原論을 펼쳤다.

古朝鮮에는 太伯山을 舞臺로 하는 檀君의 建國神話가 至今도 傳承되어 있는 등 一律的으로 崑乃至 덕굴로써 國祖 或은 人文의 濫觴으로 삼지 않음이 없다. 그리하여 그 國祖의 神話에는 太陽과 그 抽象化된 天과 그 人格化 「崑은 魂미」가 속박물질하고 그 根幹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이다. 例를 들면 昔脫解의 本國인 正明(崑은)이 그것이다. 훨씬 後代에 있어서도 建國의 說話에도 崑은을 結付시키고 있다. 例를 들면 高麗王氏의 先祖가 虎原(吏頭式으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서 檀 또는 天이라고 나오는 것은 tengri 白 또는 日로 park에 該當 되는 寫音 또는 譯字인 것이다.²³⁾

이와같은 六堂의 생각이 正當한 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檀君의 檀이 檀의 誤記임이 밝혀져야 했고 또 그 檀이 蒙古語 tengri의 ten에 對比되는 論據가 成立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前提에 대해서는 아무런 解決도 없이 六堂은 光明思想(崑思想)을 우리 民族 古代의 中心思想으로 내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우리 民族史를 살피는 한 基準으로 삼았던 것이다. 본래 民族과 民族의 理念 또는 民族史에 대한 探求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또 合理妥當한 結論이 나올 수 있는 角度에서 試圖되어야 했다. 그렇지 못할 때 모처럼의 試圖에도 不拘하고 그릇된 民族觀이 成立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릇된 民族觀에 立脚, 大衆이 動員되고 文學活動이 展開될 경우의 事態를 생각한다면 民族의 探求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까닭은 스스로 밝아지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와같은 基準에서 볼 때 國史研究를 根幹으로 한 崔南善의 方法 역시 滿足할만한 것은 못되었다. 그의 民族史 探求에는 너무 지나친 獨斷이 介入되어 있었다. 獨斷이 일으킬 副作用을 생각해 본다면 六堂의 方法 역시 믿을 게 못된은 贅言의 餘地가 없는 일이다.

23) 崔南善, 「不成文化論」, 『六堂崔南善全集』

끝으로 問題되어야 할 것에 鄉土感情이 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鄉土感情이란 民族意識, 民族感情의 下位概念이다.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장을 아끼는 情이며 따라서 原始的인 鄉土愛라고 할 수 있다. 大局의 見地에서 國家, 民族을 생각하는 代身, 出身地域과 幼年時代의 追憶, 血親과 이웃에 그 사랑의 原點을 求하는 게 이 感情의 特色이다. 이계 國民文學派의 構成員들에 이와같은 感情의 斷面이 들어남은 그들의 作品 여기저기서 散見된다. 가령 金億의 詩에서 자주 택해진 背景은 郭山, 定州등 西北地方의 地名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곳 山과 들판, 바다는 되풀이 讚美의 對象이 되고 있다. <내 故鄉은 郭山의 黃浦가 외다.> (『내 故鄉』). <東路坊川 넓은 벌은/물이 맑아 淸川이요/땅이 좋아 玉土라네> (『東路坊川』). <身彌島라 三角山/갈매기 우네/갈매기 새끼임고/선어서 우네> (『갈매기』). 그리고 이와같은 경향이 朱權翰이나 金素月, 李殷相 등에게도 다같이 나타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問題 삼고자 하는 것이 國民文學派의 構成員들의 故鄉에 대한 그리움 자체가 아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作品이 취할 수 있는 素材는 無限大다. 오히려 어떤 素材도 排除하지 않는데서 좋은 作品은 誕生된다. 또한 어떤 作品을 위해 鄉土感情이 禁制品에 들어가야 할 理由도 없다. 그렇다기 보다 大部分의 文學作品, 특히 詩를 위해서 鄉愁는 상당히 요긴한 밑천이 될 수 있다. 그것은 詩作의 모티브으로서 鄉愁가 比較的 純粹한 感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서 한걸음 나아가 만약 우리가 갖는 鄉土感情이 民族感情에 相反乖離되는 것이 라면 그것은 問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國民文學派의 當面課題가 民族意識의 鼓吹였기 때문이다. 다음 鄉土感情이 民族感情의 下位概念이라고 했으나 그 逆은 반드시 眞이 아니다. 즉 모든 鄉土感情이 民族感情에 包括되고 受容, 滋養化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본래 이 경우의 感情이란 우리 자신의 個性에 關係되는 것이다. 그런데 鄉土感情이 個性

의 直接的 形態라면 民族感情은 그 抑壓 내지 調整된 形態다. 前者와 後者의 差異에 대해서 『政治와 歷史에 있어서의 國民性』의 著者인 헬츠는 재미 있는 사실을 紹介했다. 그에 의하면 獨逸의 勇將 몰트케는 日記와 아내에게 보내는 便紙에서 戰火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 懺悔하므로써 따뜻하고 多情多感한 一面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將軍으로서 그는 독일에 有利하다고 생각하자 戰端을 일으키고 벨지움의 中立을 無視하며 그 國境線을 突破했다.²⁴⁾ 이것은 私的인 個性이 民族的인 單位에 연결되는 個性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端的인 보기가 된다. 그리고 前者에 관계되는 것이 鄉土感情이며 後者의인 것이 民族感情이다. 헬츠는 兩者의 差異에 대한 民族的個性이 單位體로서의 個性에게 犧牲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個人이 民族的 威儀 앞에 屈從하는 까닭은 그를 통해 앞으로 그의 個人的인 性格이 伸張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⁵⁾ 그야 어떻든 이와같이 主從關係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私的인 個性을 民族的 個性과 對等하게 다뤄려고 하는 경우 곧 兩者는 모순, 충돌한다. 이 경우 우리는 한 보기를 韓末의 韓國 民族主義者들의 行動에서 구할 수 있다. 庚戌國恥를 당하자 상당수에 달하는 憂國志士들이 韓滿 國境을 넘었다. 그들의 뜻은 물론 獨立運動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 그들 中 상당수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中途에서 버리고 日帝가 支配하는 韓半島로 되돌아 갔다. 이유는

24) Frederick Hertz, *Nationality in History and Politics*(London, 1966), pp.45. 46

25) *Ibid.*, p.27. 參考로 原文을 그대로 적어보면, The striving for national personality often implies the sacrifice of individual personality. We are compelled to subordinate our spiritual and material interest to those declared as national interests and to conform our mentality and behaviour to the so-called national character. One of the principal reasons of this attitude is that the individuals are overawed by the power, greatness and fame of the nation and hope to enlarge their individual personality by merging it in the collective.

그들 마음속에 主權回復이 무의미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 일과 무관하게 그들에게는 따뜻한 人情, 故土의 등불과 習俗들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이 한가지 사실은 鄉土感情이 民族的인 感情과 반드시 一致, 調和되는 게 아님을 말해 준다. 때문에 우리는 國民文學派 속에 出沒하는 鄉土感情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國民文學派의 鄉土感情이 民族感情에 違背되리라는 確定 證據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感情이 너무 지나치게 我田引水格인 點은 어쩔면 우리를 緊張케 한다. 가령 六堂은 『金剛禮讚』에서 다음과 같이 金剛山을 기려 말지 않았다.

朝鮮人으로서 朝鮮의 第一이 무엇임을 모르면 아무러 했든지 큰 羞恥입니다. 그것이 世界의 第一을 兼하는 것이면 그를 모르는 羞恥도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金剛山은 어떠한 意味로든지 朝鮮의 第一이요 兼하여 世界의 第一인 것입니다. 朝鮮뿐만 아니라 世界를 통틀어 다시는 짝이 없고 견줄이 없는 唯一特絶한 天地間 奇蹟입니다²⁶⁾.

물론 우리는 金剛山이 名山임을 否認코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世界의 으뜸 <唯一特絶>한 奇蹟임이 立證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論據가 必要했다. 그러나 234面に 걸친 六堂의 『金剛禮讚』에서 그게 이루어진 部分은 거의 없다. 그저 金剛山을 기리고 그 훌륭함을 되풀이 말하고 있는듯 보이는 게 『金剛禮讚』이다.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國民文學派의 鄉土感情에 대해 警戒心を 품는 까닭도 대개 짐작되리라 믿는다. 즉 國民文學派는 그들의 感情을 統制하고 公的인 것으로 만드는 데 機能的인 편이 못되었다. 그런 이상 私的인 感情에 치우쳐 民族感情내지 民族意識을 歪曲 偏向的인 것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國民文學派가 지닌 限界點에 이와같은 事情이 考慮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26) 『金剛禮讚』(白雲社, 1928), p. 1.

이상 몇가지 缺陷과 함께 또 우리는 國民文學派에 推擧되어야 할 部分이 있었음도 보아 왔다. 따라서 國民文學派는 稱譽와 批判이 아울러 가능한 文學流派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우리 우리 주변에서 擧論되어야 하리라 믿는다.